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설 것

이덕선
경기도지회장

이덕선 경기도지회장

현재, 현대축산(신란계 5만수) 대표
(사)대한양계협회 경기도지회장
(사)친환경축산협회 부회장
경기 참여농장포럼 이사
2010.2 여주대 음악과 졸
2012.2 상지영서대 동물생명과학과 졸

대 한양계협회 경기도지회가 지난 4월 12일 정기총회를 통해 이덕선 신임 도지회장을 선임했다. 최근 산란업계가 사육수수 과잉, 생산비 이하의 계란 시세로 농가들이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덕선 도지회장을 만나 앞으로 경기도지회 운영방안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덕선 도지회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회장 이덕선입니다. 저는 경기도 이천시에서 5만수 규모 산란계농장인 현대축산을 공동경영하고 있습니다. 1983년 산란계 8천수를 시작으로 36년째 외길을 걷고 있습니다.

2004년경 협회에서 전국난가조사위원장을 맡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거래되는 계란시세를 매일같이 조사해 협회에 전달하고 협회는 그 시세정보를 접수해 발표하는 방식이었죠. 현재는 각 권역별로 난가조사위원이 있어 해당 지역의 시세조사 후 협회에 전달해 시세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3년 임기 기간 동안 난가조사업무와 함께 10여년간 이천채란지부장, 9년간 경기도지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해온 경험이 바탕이 되어 지난 4월 12일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경기도지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최근 생산비 이하로 계란가격이 거래되면서 생산농가 모두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불황에서 그간의 활동이 경험이 되어 난가 시세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회와 계란유통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지회의 운영은?

경기도는 전국 양계 생산량의 19.7%(34백만수/175백만수×100%, 2019년 1분기 기준)를 차지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양계농가(564개소)가 밀집해 있습니다. 경기도지회는 11개의 육계지부(고양, 김포, 안성, 양평, 여주, 이천, 파주, 포천, 화성, 양주, 연천), 8개의 채란지부(광주, 김포, 동양연, 용인, 안성, 이천여주, 평택, 포천), 종계지부(이천여주) 1개, 강화군지부 등 총 21개 지부를 대표하는 도지회로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경기도지회 임원 임기는 3년으로 채란분과, 육계분과, 종계분과 등 총 3개 분과를 두고 위원회별 주요사안에 대해 전문성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24일 경기도

지회가 창립해 내년이면 만 10년이 됩니다. 그 동안 도청과의 적절한 관계유지를 통해 양계 농가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이 원활히 이뤄졌습니다. 이번 임기동안 정책적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산업 현안에 대해 해결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계산업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안이 있다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사안은 난가 안정화입니다. 농가는 2003년부터 수년간 발생한 AI로 경영난을 극복하고 안정된 수입을 위해 몇 년에 걸쳐 사육수수를 늘릴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죠. 그런 와중에 2017년 살충제 파동으로 인한 계란 안전성 문제와 급변하는 정부 정책으로 인해 생산비 이하의 시세 거래로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도지회장을 맡게 되면서 필드에서 느낀 현안에 대해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된 ‘난각 산란일자 표기’와 관련 현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생산자들의 현장 목소리가 일체 배제된 정부의 행정 편의주의적 집행으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난 후부터는 시행하지 못하는 소규모 생산농가는 범법자로 초래될 수 있고, 유통인, 소비자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차후 정부와의 T/F회의를 통해 ‘난각 산란일자 표기’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즉각 반영하고 계도기간을 충분히 늘려 신규 정책에 따른 피해 농가가 나타나지 않도록 협회는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협회 내 전문위원이 필요로 합니다. 학계, 생산농가, 생산과 유통 모두를 참여하는 농가, 2세대 경영인, 오랫동안 경영해온 양계농가 등 다양한 전문위원을 구성해 필드상황을 충분히 다룬 후에 정부정책 수립에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양계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먼저 드릴 말씀은 경기도지회 창립에 헌신하신 초대 오세을 회장님, 2,3대 이영재 회장님, 4대 송복근 회장님 그리고 임원 및 회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양계협회 안에 가칭 부인정책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반목과 대립에 불협화음을 순화하고 서로 상충되는 의견들을 지혜를 모아 합의된 하나의 목소리 그리고 정책 제시와 방향에 합의된 의견을 도출해 낸다면 양계산업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렇게 되는 과정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재 | 장성영 기자
ch-spirow@hanmail.net

